

# “지역 균형발전 목표 기존지역의 상생발전”

도의회 균형발전특위 위원들, 전북도 정책 관련 업무보고 청취  
“동부권·새만금 외 서남권 지원 통해 전북 전체가 성장토록 해야  
기업유치 도움 될 수 있도록 도내 이전기관과 지속 협의도 중요”

전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 전주10)는 30일 전북 균형발전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원을 위해 관련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전북도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 및 전북도 시군간 균형발전 정책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특별 개발 관련 △기회발전특구 추진 관련 △도내 대학 협력사업 추진 및 지방대 위기 극복 관련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현안별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문승우 위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전북 대학상생 발전협의회 관련 개최 횟수가 현저히 낮은 점을 꼬집으며, 단순 형식적 구성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지자체-대학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도내대학 지원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균등한 대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지역특화 동부권 발전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권 지원과 함께 새만금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봉 위원(더불어민주당, 완주)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하여 전북의 혁신도시 시군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대기업 유치가 필요한 만큼, 전북 금융산업 육성 및 공

공기관 이전 더 나아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특례발굴 등을 위해 도와 의회간 상호협력 및 노력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성수 위원(더불어민주당, 고창)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추진과 관련, 이번 세 번째 도전에서는 과오를 만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전라북도의 도내 대학에 대한 균등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일률적인 균등 지원보다는 각 대학마다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대학지원 사업 발굴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의 이상적인 목표는 낙후지역 개발과 함께 기존지역의 상생발전이라고 강조하며,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 동부권 발전사업과 새만금사업에 대한 지원 외에 고창 점음 등 서남권 지역에 대한 지원 및 발전방안 강구를 통해 전북도 전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태 위원(더불어민주당, 진안)은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의 강점을 잘 아는 시군직원의 IT 팀 구성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명지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11)은 전북도의 교육협력 정책과 관련하

여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을 위해 대학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기는 하나 초중고를 담당하는 교육청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교육청과 협력사업 발굴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현 정부의 교육 개편안에는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 확대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대학 구조 조정과 지원에 실질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명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10 선거구)은 전북혁신도시내 이전기관들이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 주민지원사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는 한편, 향후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도내 이전기관과의 지속적 협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활동과 관련하여 타 시도와 비교하여 유사한 지원으로는 성과를 높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우리도만의 특화된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지역 산업과 연계한 유망학과 신설 지원으로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와 관련해 전북도가 선점할 수 있도록 전북도의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 국가기상 기본계획 시행체계 정비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기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국가기상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시행체계를 정비하고, 예보와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대안번호)됨에 따라 기상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과 대응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위험기상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확한 기상정보 제공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이라며 “그러나, 현행 기상법상 기본계획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개발 위주에 한정되어 있고,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사항 역시 기본적인 내용만 담겨 있어 국가기상업무 전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김대환 기자



군산시의회의 의원들이 3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군산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 “군산새만금신항·동서도로 관할권, 군산시에”

군산시의회, 신항·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군산시의회의(의장 김영일)가 3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군산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한 이후, 도지사 면담을 가지고자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이날 시의회는 브리핑에서 군산새만금신항과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군산시로부터 빼앗아 가려는 김제시와 이를 유유부단하게 관망만 하는 전북도의 무책임한 방관을 강력히 성토했다고 밝혔다. 군산새만금신항은 군산의 행정구역인 비안도와 무너도 사이에 두고 군산시가 관할하는 두리도와 일체화하여 조성되는 인공섬 형태의 항만이며, 동서도로 또한 군산시가 전기 수도, 가

스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공급과 새만금국가산업단 물류물 군산새만금신항과 연결하는 군산시의 핵심 기반시설이기에 군산 관할은 자명한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군산시의회의는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를 적극 해결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해 사전에 전북도지사께 공문을 보내어 면담을 요청했으나 도지사는 일정상의 이유를 대며 불참하였고 정무부지사가 대신 참석하기로 했다. 김제시와 군산시 간의 관할권 분쟁은 2018년 12월 12일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도 방관을 비난하며 전북도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회를 보이콧한 바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출신의 김관영 도지사가 군산시와 군산시민을 하대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고 입을 모아 분개했다. 한편 군산시의회의는 그동안 김제시의 ‘先 관할권 後 행정구역’ 주장에 대응하여 지난 1월 11일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정부와 전북도는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 농단을 엄중 해결하라’는 언론 브리핑을 열고 현장을 방문했으며, 제25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새만금신항관할권 분쟁해결촉구 결의안 및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사용 천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1월 12일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도 방관을 비난하며 전북도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회를 보이콧한 바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 도내 기초의회들 새해 첫 임시회 개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등 심의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30일 제28회 임시회를 열고 2월 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계묘년(癸卯年) 첫 회기를 시작했다. 이날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의했다. 또한 30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운영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김민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해 첫 업무보고인 만큼 집행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진안군의회도 균형발전 방향에 대해 더욱더 고민하고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민 기자

순창군의회, 올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익)가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2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다. 신정익 의장은 30일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순창군의회에 보여준 성원과 격려에 대해 군민들께 감사의 표하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비전을 실현해 군민들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각별하게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어, 동료 의원에게 이번 임시회에는 올 한해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회기임을 강조하며 주요업무 보고·청취 시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살펴 합리적인 대안과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본회의장에서 김정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노인 빈곤층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순창=이영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